

# “50대 피터팬? 긍정이 비결이에요”

### 유준상, 디지털 싱글 앨범 ‘서든리’ 발매 영 밴드 마마스건의 ‘앤디 플랫폼’와 협업

“뮤지컬에, 음악 작업에, 영화 제작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우리 나이로 50살에 피터팬으로 사는 비결이요? 힘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넘기려는 노력 덕분입니다.”

배우 겸 가수 유준상이 최근 디지털 싱글 ‘서든리’ (Suddenly)를 발매했다. 1995년 SBS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유준상은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우뚝 섰지만 그가 음반을 5장이나 낸 ‘가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난 유준상은 “배우일 댄 이야기 전달자가 되지만, 음악을 만들 땐 주체가 된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도구로서 앞으로 음악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든리’는 영국 밴드 마마스건의 보컬 앤디 플랫폼이 만든 곡이다. 플랫폼은 박효신, 존박 등과도 함께 작업한 뮤지션. 유준상은 뮤지컬 발성이 묻어 나지 않도록 보컬 레슨을 받으며 가요

느낌을 살렸다.

“앤디 플랫폼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놀랐어요. 데모곡을 들어보더니 드럼, 기타 사운드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다시 녹음해서 보내주고. 나중에 한국 오거든 받아라든 사줘야겠어요. 미안한 건 제 노래가 음원 차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친구는 내심 기대했을 텐데, 하하하.”

결그룹 대전이 벌어진 8월에 발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음악으로 시장과 연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엔젤투가는 누군가 제 음악을 듣고 위안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낸다”고 답했다.

유준상은 3년 전 음반회사 주네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기타리스트 이준화(28)와 ‘제이앤조이20’ (JnJoy 20)이라는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제이앤조이20 인(in) 경주’, ‘제이앤조이20 인(in) 아프리카’ 발매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

주 앨범은 수록화 대가인 소산(小山) 박대성 화백의 그림에서 모티프를 얻었는데, 현재 12명의 국악 연주자와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세 번째 음악영화 ‘스프링 송’ (Spring Song)도 최근 일본 후지산에서 촬영을 마쳤다.

지칠 줄 모르는 창작욕이 버겁지 않냐고 물었지만,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23년 배우 생활에서 배우 건 ‘무엇이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다. 우공이산(遇公移山)이라 할 만하다.

“전 한 번 약속한 건 몇 년이 지나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경주 앨범, 아프리카 앨범도 3~4년 전부터 착수한 거고, 영화 ‘스프링 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번 영화는 현지 로케이션 비용이 꽤 들어서 그대로 멈추긴 아깝더라고요. (웃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 순차적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나이에 견주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는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누구나 고민이 있잖아요. 20대 때는 가장이 돼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했고,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신체 오른쪽쪽 다 못 쓰세요. 이런 상황을 접하면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든 거겠어?’ 라는 생각으로 넘기려 해요. 전 그걸 훈련이라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인터뷰를 매듭지을 무렵, 그는 “60살이 돼서도 가수로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내달 7일 첫 방송

### 2억원 상금 쟁취 시스템

엠넷은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새로운 시즌인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Show Me The Money 777)을 오는 9월 7일 밤 11시에 처음 방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기리보이와 스윙스, 딥플로우와 녀살, 더콰이엇과 창모, 코드쿤스터와 팔로알토 등 막강한 프로듀서 군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상금은 총 2억원. 뺏고 빼앗기는 상금 쟁취 시스템, 대규모 1차 예선 폐지라는 파격 장치로도 눈길을 끈다.

진행은 시즌3부터 함께한 래퍼 김진표가 맡았다.

또 나플라, 루피, 키드밀리, 차붐, 오르내림, pH-1과 더불어 EK, 몰디, 텀



데프,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 조원우, 오달물, 윤병호 등이 참가자로서 뜨거운 승부가 예상된다.

‘쇼미더머니’는 그동안 로꼬, 소울다이브, 바비, 베이식, 비아이, 행주 등 실력과 래퍼들을 발굴했다.

## 결그룹 유니티, 내달 마지막 앨범 발매

### 용감한형제의 ‘오스오스’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으로 결성된 결그룹 유니티가 다음달 마지막 앨범을 낸다.

매니지먼트사 포켓돌스튜디오는 “프로젝트 그룹 유니티가 오는 9월 13일 마지막 앨범을 발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유명 작곡가 용감한형제와 손잡고 만들었다. 타이틀곡 제목은 ‘오스오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미니 1집 ‘라인’ (LINE)을 내고 타이틀곡 ‘넘어’로 활동하며 검증된 실력과 무대 매너로 사랑받았다.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유니티의 활동 기간은 첫 팬미팅을 한 지난 3월에서 8개월 뒤인 11월까지로, 연말까지 1개월 더 전속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각 멤버의 소속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마지막 앨범을 발매하는 결그룹 ‘유니티’

## ‘면접 프리패스’ 연예인에

### 박보검·박보영 1위 올라

### 잡코리아 직장인 설문

채용 면접에서 무조건 합격할 것 같은 남녀 연예인으로 각각 박보검과 박보영이 뽑혔다.

16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93명을 대상으로 ‘면접 프리패스상 연예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자 연예인 가운데서는 박보검이 응답자 27.0%(복수응답)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24.4%)가 그 뒤를 이었고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연석(21.2%)과 배우 박서준(16.9%), 가수 승리(13.3%) 등의 순이었다.

여성 연예인 가운데서는 영화 ‘너의

결혼식’의 주인공인 박보영을 꼽은 응답자가 30.7%로 가장 많았다. 항상 웃는 인상과 예의 바른 이미지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태리(29.5%)가 근소한 격차로 2위에 올랐고, 배우 박신혜(23.6%)와 가수 하니(14.7%), 가수 소유(12.0%) 등이 뒤를 이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박보검과 박보영은 모두 예의 바른 이미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서 “차분하고 신뢰감 가는 이미지의 연예인들이 주로 상위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접 프리패스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6%(복수응답)가 ‘인상 등 분위기’라고 답했으며,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55.1%)과 단정한 용모(35.9%), 화법·목소리(18.3%)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 폴 매카트니 신곡 ‘퍼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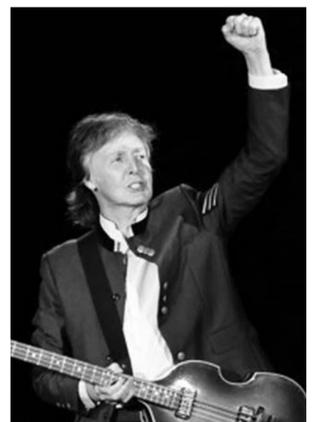
올해 76세인 영국의 팝 아티스트 폴 매카트니가 15일(미국 현지시간) 신곡 ‘퍼유(Fuh You)’를 발표했다.

올 가을 나오는 매카트니의 신보 ‘이집트 스테이션’에 수록될 곡으로, 이 앨범에 담긴 16곡 가운데 3번째로 공개되는 것이다.

AP통신은 54년 전 그룹 비틀스의 멤버로 ‘아이 워너 홀드 유어 핸드(1964)’를 발표했던 매카트니가 더 직접적인 화법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Fuh’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흔히 욕설에 사용되는 ‘F\*\*\*’를 의미한다. 매카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일종의 사랑 노래인데, 좀 깨끗하지는 않다”고 소개했다.

매카트니는 이 노래에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면서 ‘자, 이리 와서 당신의 얘기를 해봐. 내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사실을 말해봐’로 시작되는 줄거리로 가사를 썼다고 말했다.



미국 연예매체들은 한 여성에게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남성의 강한 마음이 노래에 표현됐다고 전했다.

‘이집트 스테이션’은 5년 만에 나오는 매카트니의 새 앨범으로 9월 7일 출시된다.

## 중 배우 판빙빙, 탈세 의혹



탈세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기 배우 판빙빙(范冰冰)이 베이징의 한 숙박 시설에 연금된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중국 온라인 매체 신량재경(新量财经)에 따르면 판빙빙은 매니저, 소속사 회계 담당자 등과 함께 베이징시의 반부차오(半步橋) 조대소에 머무르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추이잉위안(崔永元)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계정을 통해 판빙빙이 조사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베이징의 조대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 전 중앙TV진행자, 이종계약서로 출연료 은닉 주장

추이잉위안은 지난달 웨이보를 통해 초 판빙빙이 6,000만 위안(약 1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陰陽)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통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음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 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말한다. 판빙빙은 탈세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달 초 한 아동병원을 방문한 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가 당국에 출국금지된 상태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

가 실린다. 중국 형법에는 탈세 초범의 경우 탈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판빙빙 탈세 의혹은 톱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세무당국과 외환 감독 당국 등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영화배우, 모델, TV 스타,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중국 당국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할 때 주연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고, 제작사들은 드라마 한 시즌당 출연료가 5,000만 위안(약 8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연예인들의 높은 몸값과 탈세 관행은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체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의 민감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